실제 AI 활용 과정 기록 · 분야: 생활 속 AI / 취미·여가(그림·창작)

그림은 그럴듯한데, 부천은 어디에 있을까?

시안을 더 많이 만드는 대신, 부천이 읽히지 않는 이유를 찾고 수정 기준을 세운 작업입니다.

사용한 AI	작업	상태
Codex 대화형 AI와 이미지 생성 기능	부천 관광기념품 책갈피 시안	실물 제작 전 콘셉트

01 문제 찾기	02 형태 바꾸기	03 뒷면 보강
B39 거치대는 복잡해 보이고, 부천의 장소가 바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평면 책갈피를 선택하고 부천8경 세 장소를 공식 명칭과 번호로 표시했습니다.	앞면은 유지하고, 뒷면을 세 장소가 이어지는 산책길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처음의 문제

부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Codex의 대화형 AI로 아이디어와 수정 방향을 논의하고,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천아트벙커 B39를 모티브로 한 휴대전화 거치대를 구상했습니다. 그림은 그럴듯했지만 지지 구조가 복잡해 보였고 휴대전화가 뒤로 기울 수 있어 보였습니다. 무엇을 그린 것인지, 부천의 어느 장소인지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요청 기준을 세우다

저는 "더 예쁘게"라고만 요청하는 대신 부천의 장소가 알아보이게 드러날 것, 기념품으로 만들기 쉬운 단순한 형태일 것, 그림과 설명이 서로 맞을 것이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복잡한 거치대에서 평면 책갈피로 방향을 바꾸고, 상동호수공원·수피아(제4경), 한국만화박물관(제6경), 부천아트벙커 B39(제8경)를 담은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각 장소명과 번호는 부천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뒷면을 따로 고치다

앞면을 정리한 뒤 뒷면이 구역 표시와 짧은 문구만 있어 허전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앞면과의 밀도 차이, 장소 사이 연결이 부족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뒷면을 공원과 온실에서 시작해 한국만화박물관을 거쳐 B39로 이어지는 세로 산책길로 다시 구성하고, 앞면과 어울리는 식물 세밀화 분위기를 맞췄습니다.

참고 확인: 부천8경 공식 안내 · 전국민 AI 활용 사례 공모전 시즌 3 참가 안내서

01 · 처음의 시간

B39 휴대전화 거치대

복잡한 구조와 약한 장소 식별성이 제품 방향을 다시 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검토한 점 휴대전화가 뒤로 기울 가능성 · 지지 구조의 복잡함 · 그림만으로 장소가 읽히는지

이 이미지는 초기 콘셉트 시안입니다. 실제 제작된 거치대 사진이 아닙니다.

02 · 수정한 시안

부천8경을 앞뒤 한 장면에

앞면은 장소를 정확하게 보여 주고, 뒷면은 세 장소를 한 경로로 연결했습니다.

부천8경 세 장면 책갈피

앞면의 장소 그림은 유지하고, 뒷면을 같은 밀도의 산책 장면으로 보완했습니다.

01 앞면



부천8경 세 장소를 각각 보여 주는 기존 시안

02 뒷면



공원에서 박물관, B39로 이어지는 세로 여정

표시한 장소 제4경 상동호수공원·수피아 · 제6경 한국만화박물관 · 제8경 부천아트벙커 B39



책에 꽂은 모습은 사용 장면 콘셉트이며, 실물 사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따라 할 수 있는 순서

1. 쓰임 정하기	2. 장소 고르기	3. 기준으로 보기	4. 이유를 나눠 수정
누가 어떤 상황에서 쓸 물건인지 정합니다.	지역의 공식 장소와 이름을 확인합니다.	지역성·제작 난이도·가독성을 점검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다시 검토합니다.

실제 작업의 범위 현재 결과는 출품용 콘셉트 시안입니다. 인쇄·판매·관광객 사용성 평가는 하지 않았으므로 판매 반응이나 비용 절감 같은 성과를 주장하지 않습니다.